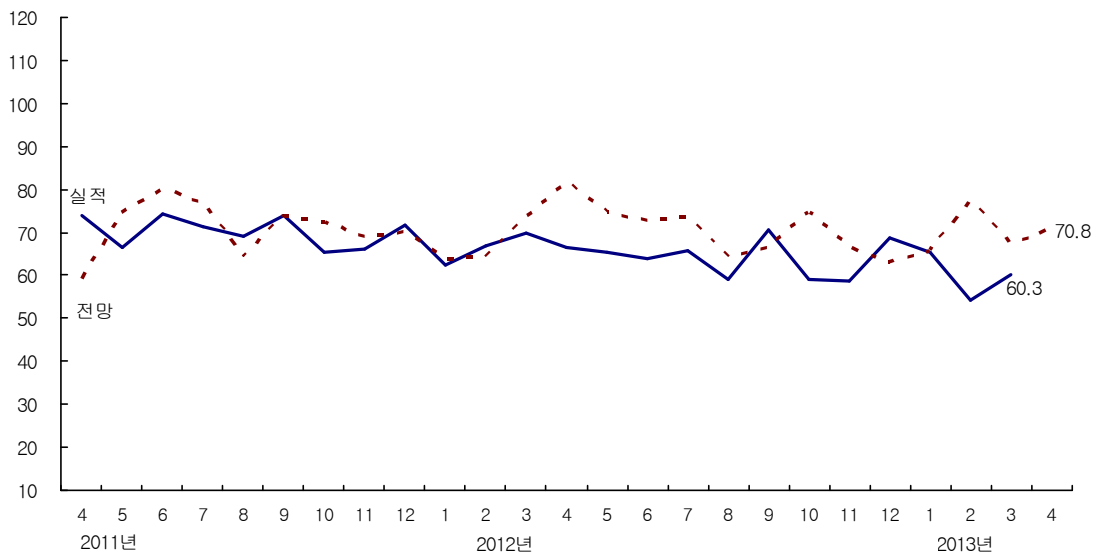


# 2013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3월 CBSI 6.0p 상승한 60.3 기록  
기저효과, 계절적 요인 영향 3개월만에 CBSI 상승

- 2013년 3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6.0p 상승한 60.3을 기록함.
  - 이로써 지난 1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했던 CBSI가 3개월만에 다시 상승함.
  - 이는 무엇보다 지난 2월 CBSI가 11.1p나 하락하며 30개월만에 최저치(54.3)를 기록한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고, 더불어 3월에는 호한기가 끝나 통상 CBSI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 역시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판단됨.
  - 그러나 CBSI 상승에도 불구하고 CBSI 수치는 기준선인 100.0에 훨씬 못 미친 60선에 불과하며, 호한기로 인해 지수가 부진했던 1월 CBSI 수치(65.4)에도 못 미친 것을 볼 때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아직 심각한 수준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비 큰 폭으로 상승했고, 중소기업 지수도 전월비 소폭 상승한 반면,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하락함.
-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인 2월에 한일건설, 동보주택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무려 18.7p나 하락해 2월 CBSI 하락을 주도했는데, 3월에는 반대로 전월비 18.7p 상승한 66.7을 기록해 3월 CBSI 상승을 주도했음.
- 이는 추가적인 체감경기 악화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전월인 2월 중견업체 지수가 4년 4개월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 지수도 전월비 2.6p 상승한 42.6을 기록했는데, 지수 자체는 여전히 대형, 중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함.
- 한편,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2월 지수가 작년 4월(71.4) 이후 최저치인 72.7을 기록했는데, 3월에도 3.5p 하락한 69.2를 기록해 2010년 8월(50.0) 이후 3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부진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2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1월	2월	3월		4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65.4	63.8	65.7	59.0	70.6	58.9	58.7	68.9	65.4	54.3	60.3	67.1	70.8
규모별	대형	92.3	92.9	92.9	80.0	91.7	76.9	78.6	92.9	85.7	72.7	69.2	72.7	76.9
	중견	58.3	50.0	56.0	46.2	61.5	57.7	55.6	64.0	66.7	48.0	66.7	58.3	79.2
	중소	41.8	45.6	44.8	49.1	56.4	39.3	38.9	46.3	40.0	40.0	42.6	70.4	54.0
지역별	서울	74.9	72.1	79.4	63.8	80.5	69.9	69.6	79.3	76.2	63.6	64.8	67.6	73.1
	지방	53.6	51.0	45.2	51.6	56.5	43.2	42.5	52.1	49.0	41.8	53.6	66.7	69.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2013년 4월 CBSI 전망치는 3월 실적치 대비 10.5p 상승한 70.8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10p 이상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그만큼 4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3월 CBSI 실적치가 60선에 머물며 아직 저조한 기저효과와 더불어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발표, 추경예산 편성 발표 등이 4월 CBSI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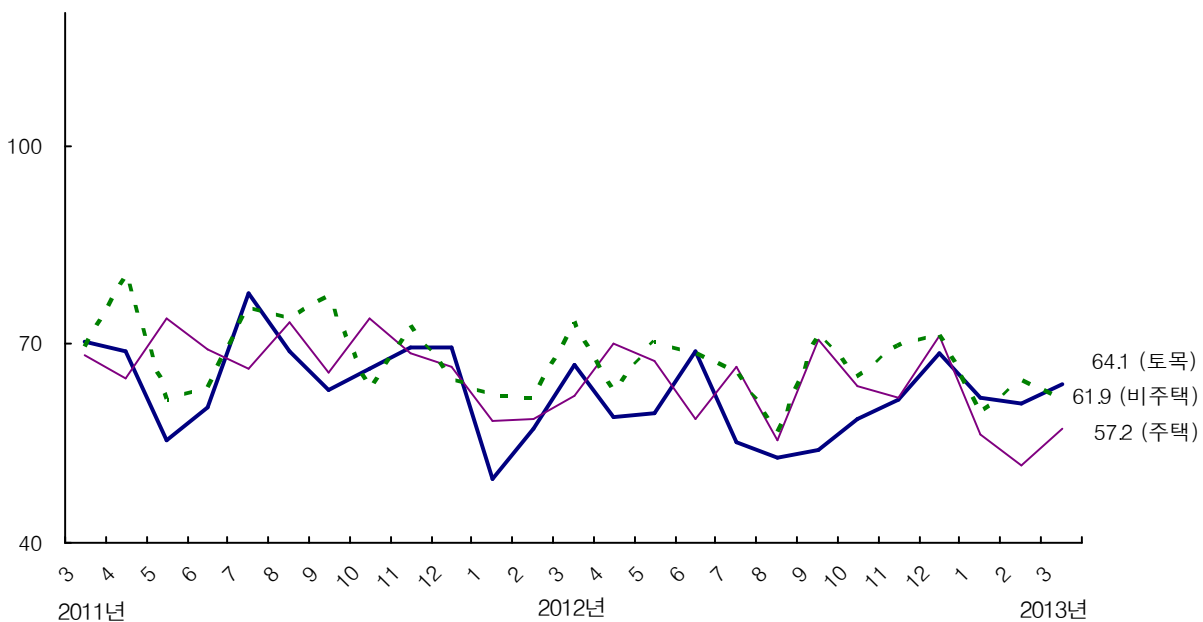
- 그러나 정부 대책들이 당장 4월 건설경기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4월 CBSI 실적치가 실제로 70선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3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가 전월 대비 1.2p 소폭 상승한 데 반해, 지방업체는 통계적 반등 효과로 11.8p 상승함.
  - 서울업체는 전월보다 1.2p 상승한 64.8로 60선에 머물며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서울업체의 상승폭이 미미했던 것은 3월 들어 서울업체의 물량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공사 물량지수의 경우 서울은 57.6로 전월 대비 6.0p 감소하였음.
  - 지방업체는 전월보다 11.8p 상승한 53.6을 기록, 지수가 10p 이상 개선됨. 이는 지난 2월 지수가 41.8로 2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저치인데 따른 통계적 반등효과 때문임. 단, 지수 자체는 53.6으로 50선 초반에 불과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여겨짐.
  - 한편, 2013년 4월 전망치의 경우 서울업체는 3월보다 8.3p 상승한 73.1로, 지방은 15.8p 증가한 69.4로 전망함.

### 3월 공사 물량지수 지난 전월보다 1.6p 감소한 58.0기록

- 2013년 3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6p 감소, 3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저치인 58.0을 기록해 건설업체의 공사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물량지수는 올 1월과 2월 각각 7.8p, 7.0p 감소해 60선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3월에도 1.6p 하락하여 3개월 연속 감소와 함께 7개월간 가장 부진한 58.0을 기록함.
  - 통상 3월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지수가 5p 이상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오히려 지수가 하락함.

- 지수 자체도 3월 실적으로는 전체 공사물량 지수가 작성된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58.0에 불과해 업체들의 공사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64.1, 61.9를 기록하였으며, 주택 물량지수는 57.2로 공종별로는 가장 낮았음.

####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비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2월 64.6로 공종별로는 가장 양호했음. 그러나, 3월에는 전월 대비 2.7p 하락한 61.9로 60선 초반대로 떨어짐.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5.4p 상승한 57.2를 기록함. 지난 2월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51.8을 기록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효과 및 계절적인 요인으로 지수가 소폭 회복됨. 그러나, 여전히 지수가 50선에 불과해 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토목 물량지수는 1월과 2월 각각 6.6p, 1.0p 하락하였으나 3월에는 3.1p 상승한 64.1을 기록함. 공종별로는 가장 양호한 수치이나 60선 중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중소기업체가 전월 대비 5.5p 상승한 반면, 대형과 중견업체 물량지

수가 각각 3.5p, 5.8p 감소해 부진하였음.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3.5p 감소한 69.2로 3월 수치로는 지난 2008년 3월 66.7 이후 가장 부진한 수치를 기록함. 비주택 물량지수가 92.9로 타 공종에 비해 다소 양호했으나, 토목과 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78.6을 기록해 부진했음.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지난 2월 14.1p 감소했는데 3월에도 5.8p 감소한 54.2로 3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토목 물량지수가 58.3으로 50선을 기록했으며,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41.7, 48.0을 기록해 40선에 불과했음. 공종별로는 주택 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58.0	69.2	54.2	49.1	57.6	58.5
	전망	72.2	76.9	75.0	63.5	68.4	78.0
토목	실적	64.1	78.6	58.3	53.6	65.6	61.9
	전망	80.0	85.7	87.0	65.4	78.7	81.6
주택	실적	57.2	78.6	41.7	50.0	61.3	51.4
	전망	65.5	71.4	56.5	68.9	62.8	70.3
비주택	실적	61.9	92.9	48.0	41.5	71.5	47.7
	전망	71.8	92.9	58.3	62.5	73.9	68.6

주 : 실적은 2013년 3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4월 예측지수임.

- 중소기업체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5.5p 상승한 49.1을 기록함. 비록 전월 대비 지수가 개선되었어도 여전히 40선에 불과해 중소기업체의 경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공종별로 토목과 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53.6, 50.0으로 50선을 기록하였으며, 비주택 물량지수는 41.5를 기록함.
- 지역별로 서울업체는 전월 대비 6.0p 감소한 57.6으로 지수가 감소한데 반해, 지방업체는 전월보다 4.4p 상승한 58.5를 기록해 소폭 개선됨.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2월 전월 대비 15.9p 하락한 이후 3월에도 6.0p 감소해 두달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임. 결국, 3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저치인 57.6을 기록해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물량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공종별로 토목과 주택이 각각 65.6, 61.3으로 60선으로 부진하였으며 비주

택 물량은 71.5를 기록하였음.

- 지방업체 물량 지수는 전월보다 4.4p 상승한 58.5를 기록함. 비주택이 전월보다 15.2p 하락한 47.7로 지수가 악화되었지만, 토목이 전월보다 13.1p 상승한 61.9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주택도 전월보다 1.3p 소폭 개선된 51.4를 기록함.
- 경기가 매우 침체되었던 200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서울업체 물량지수가 지방 물량지수보다 떨어졌는데, 서울소재 건설업체들이 심리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물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4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3월 실적치보다 14.2p 상승한 7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통상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면서 계절적인 요인으로 5~7p 정도 상승하는데 올 4월 상승폭은 예년보다 다소 높음.
- 이는 통상 2~3월 상승했어야 할 물량 지수가 감소해 부진한데 따른 반등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80.0, 71.8로 80~70선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주택 물량지수는 65.5로 주택 물량 상황이 여전히 타 공종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재비 및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및 자금 관련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7.3, 91.6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90.7, 73.2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2.2, 83.1을 기록해 자금 관련 상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금	실적	82.2	85.7	88.0	71.4	84.9	78.5
		전망	80.8	85.7	79.2	76.9	83.0	77.4
	자금조달	실적	83.1	92.9	88.0	66.1	89.1	74.5
		전망	79.3	92.9	70.8	73.1	82.4	74.4
인력	수급	실적	97.3	92.9	112.0	85.7	98.1	96.4
		전망	95.4	92.9	104.2	88.2	95.8	94.6
	인건비	실적	90.7	100.0	100.0	69.1	100.0	76.7
		전망	91.3	100.0	100.0	71.2	99.1	79.5
자재	수급	실적	91.6	100.0	88.0	85.7	94.2	87.9
		전망	92.5	100.0	91.7	84.6	95.2	88.3
	비용	실적	73.2	85.7	80.0	50.9	83.0	58.5
		전망	79.1	92.9	83.3	58.0	88.3	65.2

주 : 실적은 2013년 3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4월 예측지수임.

끝.